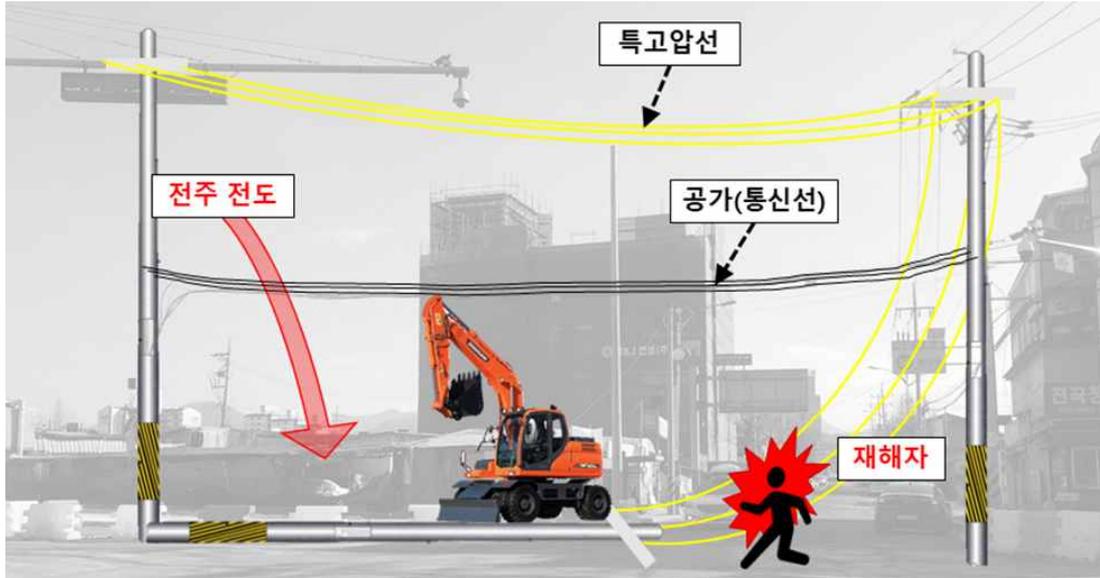




## 재해 개요

- 2023. 11. 30.(목) 10:40경, 경기도 □□군 △△읍 소재 「○○○」 현장 지중화작업 구간에서, 관로포설 작업을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 인근에서 굴착작업 중 전주가 전도되면서 특고압선(22.9kV)이 재해자를 덮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



## 재해 발생 원인

- 전주 붕괴(전도) 위험에 대한 안전성평가 미실시**
  -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작업 등으로 붕괴(전도)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성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나, 전주 인근 굴착작업으로 인해 전주가 붕괴(전도) 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
- 전주 전도방지조치 미실시**
  - 전주 인근에서 관로 굴착작업으로 인해 전주의 근입 깊이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근가블록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전주의 전도방지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재해가 발생함



## 재해 예방 대책

- 붕괴(전도) 위험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**
  - 사업주는 굴착작업으로 인해 전주가 붕괴(전도) 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에 관련 작업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해야 함
- 전도방지조치 실시**
  - 사업주는 굴착작업으로 인하여 전주가 전도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전 전주가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 실시 후 작업을 해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